‘SM 간판들’이 뭉친 유닛 1호…1월 1일 오후1시 전세계 공개

보아·태연·효연·슬기 등 일곱 멤버
‘갓 더 비트’ 이름으로 온라인콘서트
“멤버·매력별로 새 유닛 공개 예정”

카리나, 웬디, 태연, 보아, 효연, 슬기, 윈터(왼쪽부터)로 구성된 새 유닛 ‘갓 더 비트’.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 레드벨벳의 슬기, 에스파의 카리나 등 SM엔터테인먼트 간판 멤버들로 구성된 유닛이 나온다. 솔로 가수나 그룹으로 최정상에 오른 이들이 유닛(소그룹)으로 따로 뭉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테마별로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선보이는 신개념 프로젝트 ‘걸스 온 탑’(Girls On Top)으로 나선다.

보아를 비롯해 태연과 효연, 슬기와 웬디, 카리나와 윈터 등 일곱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의 이름은 ‘갓 더 비트’(GOT the beat)이다. 저마다 솔로 활동이나 그룹 내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인기를 모았던 멤버들인 만큼 그룹명부터 시선을 끌기 충분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케이팝 전 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의 멤버로 구성된 만큼 역대급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첫 무대는 새해 첫날 오후 1시 전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콘서트 ‘SM타운 라이브 2022 : SMCU 익스프레스 @광야’에서 화려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곡은 3일 오후 6시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들을 시작으로 두 번째 유닛 등 또 다른 프로젝트는 순차적으로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갓 더 비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멤버와 매력, 테마별 등을 조합해 새로운 유닛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One p!ck 추천작

tvN 유튜브 콘텐츠 ‘출장십오야’

이서진 ‘생떼’에 욱하는 나 PD ‘출장십오야’시즌2도 케미 폭발

tvN 유튜브 콘텐츠 ‘출장십오야’ 시즌2가 시작부터 터졌다.

‘출장십오야2’는 tv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예능 콘텐츠로, ‘신서유기’ 시리즈 등을 만든 나영석 PD가 연예기획사, 드라마 촬영 현장 등으로 직접 출장을 나가 스타들과 각종 게임을 벌이는 내용을 담는다.

시즌2의 포문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을 촬영 중인 배우 이서진이 열었다. ‘꽃보다 할배’ ‘윤식당’ 등을 함께 찍은 이서진과 나 PD의 티격태격하는 호흡이 웃음 포인트이자 라미란, 김광규, 차청화 등의 코믹한 입담도 볼거리다.

이서진의 ‘생떼’에 나 PD가 욱하자 라미란이 “요즘에는 PD가 출연자한테 화도 내고 그러느냐”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을 담은 1·2편은 공개하자마자 화제를 몰고 있다. 공개 반나절 만인 27일 오후 현재 많게는 50만뷰를 넘기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1위와 2위에 나란히 안착했다. 영상에는 “믿고 보는 조합” “배우들의 ‘케미’가 대단하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후에도 스타들의 출연은 계속된다. 배우 공유, 배두나, 정우성, 이정재, 염정아 등이 이미 촬영을 마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코로나로 개봉 미뤄졌던 한국영화들 전망

충무로 새해 소망…‘기대작 대방출’ 이뤄지나

‘비상선언’ ‘영웅’ ‘범죄도시2’ 등
개봉일 안 잡혔지만 관심 뜨거워
송강호·전도연 등 스타들도 화려
박찬욱·강제규 등 명감독 복귀도

비상선언

2004년 2월19일,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03년 12월24일 성탄 및 연말연시 시즌을 겨냥해 극장에 간판을 내건 지 58일 만이었다.

그에 앞서 1999년 강제규 감독의 ‘쉬리’와 2000년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2000년 ‘친구’·‘신라의 달밤’·‘엽기적인 그녀’ 등 한국영화는 잇단 흥행세로 1990년대 뿌리 내린 중흥의 씨앗을 꽃으로 피워냈다. 여기에 멀티플렉스 극장의 증가에 힘입은 관객 및 관람횟수 증가, 참신한 기획에 기댄 대중성과 작품성 확보, 영상 전문인력의 충무로 유입 등 영화의 ‘산업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도 싹을 틔웠다. 많은 영화관계자들은 조만간 1000만 관객 시대가 열릴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1000만’은 더 이상 ‘꿈의 숫자’가 아니었다. 이후 한국영화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9편을 ‘1000만 클럽’에 가입시켰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한국영화는 올해 30% 초반대 점유율로 침체를 겪고 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창궐한 탓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개봉이 줄줄이 연기됐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5월 이후 개봉하기 시작해 한국영화의 신작 효과가 작년만큼 크지 않았다”고 올해 ‘11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서 밝혔다. 적지 않은 작품이 자칫 ‘창고’에 쌓인 채 불투명한 앞날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충무로를 떠다니게 됐다.

●기대작의 개봉 목마름에 물길을

그래서 충무로 관계자들은 2022년이 ‘창고영화 대방출’의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초 내년 1월 개봉을 예정했다 일정을 미룬 ‘비상선언’을 비롯해 ‘영웅’, ‘인생은 아름다워’, ‘범죄도시2’, ‘한산:용의 출현’, ‘행복의 나라로’ 등 기대작들이 줄줄이 상영 목마름 속에 해갈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웅’과 ‘인생은 아름다워’ 등은 이미 지난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아냈지만, 결국 개봉하지 않았다. ‘범죄도시2’와 ‘한산:용의 출연’ 등도 개봉 일정을 탐색하다 잠시 관련 행보를 쉬고 있다. ‘행복의 나라로’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개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외계+인’, ‘보고타’, ‘공조2:인터내셔널’, ‘헤어질 결심’, ‘보스턴 1947’, ‘앵커’ 등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촬영을 모두 마친 작품들도 있다. 현재 치열하게 후반작업 중이거나 이제 막 작품을 완성하고 개봉에 앞서 다양한 흥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다.

●스타들 총출동!

송강호·전도연·이병헌(비상선언), 박해일·안성기·변요한(한산:용의 출현), 류승룡·염정아(인생은 아름다워), 최민식(행복의 나라로), 마동석(범죄도시2) 등이 내년 한국영화의 새로운 행보를 책임질 배우들이다. 모두 한국영화의 ‘얼굴’로 인식되어온 이들이기도 하다.

류준열·김태리·김우빈(외계+인), 송중기(보고타), 현빈(공조2:인터내셔널), 천우희(앵커) 등 스크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스타들도 가세한다. ‘보스턴 1947’의 하정우와 임시완도 선후배의 힘을 모은다.

중국스타 탕웨이가 박해일·이정현 등과 함께 주연한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다. ‘한산:용의 출현’ 김한민·‘영웅’ 윤제균·‘행복의 나라로’ 임상수·‘외계+인’ 최동훈·‘비상선언’ 한재림 감독 등 충무로의 대표적 연출자들이 박 감독과 함께 잇따라 관객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다. ‘태극기 휘날리며’로 두 번째 1000만 관객 성과를 이룬 강제규 감독도 ‘보스턴 1947’로 다시 돌아온다.

이처럼 2022년은 한국영화 톱스타급 배우들과 감독들을 대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전망은 ‘전망’이어서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도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씩 잦아들고, ‘부스터 샷’ 등 예방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조금씩 개선돼 가기를 바라기는 충무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관객 신뢰 두터운 배우와 감독들이 나선다는 점에서 2022년 한국영화의 새로운 활력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